

<<내신 기출, 독서 천재-상편>>

◆차례◆

1. 독서의 본질

- (1)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 1쪽 (22문제)
- (2) 걷기의 발견 ----- 12쪽 (51문제)

2. 독서의 방법

- (1) 걱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 37쪽 (49문제)
- (2) 무장 포고문 ----- 58쪽 (42문제)
- (3)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 76쪽 (35문제)
- (4) 꽃 출석부 1 ----- 92쪽 (11문제)
- (5)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 99쪽 (5문제)

3. 독서의 분야 I

- (1)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 103쪽 (31문제)
- (1) 순자의 성악설 ----- 116쪽 (11문제)
- (2)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 122쪽 (19문제)
- (2) 나는 고발한다 ----- 131쪽 (4문제)
- (3)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 ----- 134쪽 (5문제)
- (3) 인공 지능과 심층 학습 ----- 138쪽 (8문제)

4. 독서의 분야 II

- (1) 설총 ----- 143쪽 (8문제)
- (1) 북학의 참뜻 ----- 143쪽 (9문제)
- (2) 군주론 ----- 148쪽 (3문제)

▶전체 정답 -----153쪽

▶해설 -----156쪽

(버전: 2020.08.18.)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목표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좋은 글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함.

● 독서 목적을 고려하기

① 독서의 일반적 목적

학업 독서	공부를 위해 하는 독서
교양 독서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독서
문제 해결 독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하는 독서
여가 독서	정서적 안정이나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는 독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독서	타인과의 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하는 공동체 내의 독서

② 독서의 구체적 목적

독자가 상황의 구체적인 필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함.

예 사회과 공부를 위한 독서 자료 선택: 사회과 교과서, 지도, 참고 서적, 연계 도서 등

● 독서 목적을 고려하기

- 독서 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인지 판단해야 함.
-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미 검증된, 가치 있는 글이므로 고전이 주로 권장됨.
- 글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직접 글을 살펴보거나 전문가들의 평을 참고하는 것이 좋음.

본문 연구

■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 제재 개관

갈래	수필(에세이)	성격	설득적, 예시적, 비판적
제재	독서의 가치와 도서의 선택		
주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수험서, 실용서와 비교하여 좋은 책의 가치를 부각함. 		

● 글의 구성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	교양 독서를 하지 않는 중·고등학생들과 성인들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교양 독서의 필요성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좋은 책의 기준
	좋은 책에 포함시켜야 할 고전

● 내용 정리

■ 요즈음 학생들과 성인들의 독서 경향

학생들	성인들
교과서와 학습서, 수험서만 읽음.	실용적이고 재미있고 많이 팔리는 책만 읽음.

■ 우리 사회의 독서 문화와 바람직한 독서의 방향

독서 문화	바람직한 독서의 방향
주로 실용적 목적으로 책을 읽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읽어야 함. 소설책, 역사책, 철학책, 사회 과학책, 종교와 예술에 관한 책 등

■ 좋은 책의 기준

-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
-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
-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

■ 고전(古典)의 정의

-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책
-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
-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되고 애호되는 저술

■ 고전의 가치

-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성, 고뇌와 희망이 담겨 있어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자 문화유산임.
- 인간이 스스로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어 인류에게 불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상의 모든 자료를 분류하다

도서관에 있는 책은 옆면에 각각의 이름표를 달고 있다. 숫자와 문자가 함께 사용되어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놀라울 정도로 쉽다. 먼저 각 책장에는 앞자리가 비슷한 책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맨 앞자리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0에서 9까지 10개의 '주류'로 나눈 것이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와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000은 태초의 인간과 자연이 혼돈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특정 학문이나 주제에 속하지 않는 분야를 모았다. 100은 혼돈에서 질서를 찾기 위한 이성의 노력을 담은 철학을, 200에는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인 신을 숭배한다는 뜻에서 종교를 담았다. 300에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학을, 400에는 사회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를 모았다. 500에는 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인 자연 과학을 담고, 600에는 지식이 기술로 발전된 기술 과학을 담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술(700)이 나타났고,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문학(800)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900에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역사를 모았다.

기호	듀이십진분류법	한국 십진분류법
000	총류	총류
100	철학	철학
200	종교	종교
300	사회학	사회학
400	언어	자연 과학
500	자연 과학	기술 과학
600	기술 과학	예술
700	예술	언어
800	문학	문학
900	역사	역사

<표 1> 듀이 십진분류법과 한국 십진분류법

(나) 도서관에서 책 쉽게 찾는 법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찾으려면 먼저 컴퓨터로 책을 검사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는 책의 청구 기호를 알려줄 뿐 책을 직접 찾아 주지는 않는다. 청구 기호를 들고 책을 찾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청구 기호가 '410.912 x794x'인 책이 필요하다면 먼저 410번 대의 책이 있는 책장을 찾아야 한다. 이때 수많은 책장을 하나하나 살피지 말고 책장 옆면을 보자. 옆면에 400~413.8이라고 적힌 책장을 발견했다면 410.912에 해당하는 책은 이 책장의 오른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분류 기호가 낮은 책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책을 꽂기 때문이다. 또 맨 위층에 있는 책일수록 분류 기호가 낮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어410.8	ㄱ391x	-1=2
어		별치 기호
410.8		분류 기호
ㄱ391x		도서 기호
-1=2		부가 기호

<표 2> 도서 청구 기호의 구성

분류 기호가 비슷한 책 사이에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자. 410.9가 있다면 그 오른쪽에 410.911이 있고, 410.912는 그 오른쪽에 있다. 모든 숫자가 같다면 도서 기호의 문자를 확인하자. 도서 기호의 문자는 국어사전에서처럼 'ㄱ, ㄴ, ㄷ, ㄹ, ㅁ, ㅂ……' 또는 'ㅅ, ㅇ, ㅈ, ㅊ, ㅋ, ㆁ, ㆁ, ㆁ, ㆁ……' 순으로 비교하면 된다.

청구 기호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붙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분류 기호 앞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별치 기호'라고 한다. 이는 책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책을 보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라고 적힌 책은 일반 자료실이 아닌 어린이 자료실에 가야 찾을 수 있다.

한 명의 저자가 같은 제목의 책을 연속물로 내는 경우는 '-' 기호를 써서 분류한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여러 권 보관한다면 '='을 써서 분류하기도 한다. 때로는 책이 나온 해를 표현하기 위해 '2011' 같은 연도를 마지막에 붙이는 경우도 있다.

(다) 이름표로 책 미리 읽기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듀이 십진분류법(DDC)를 많이 쓴다. 하지만 한글로 된 책이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DDC를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 고친 한국 십진분류법(KDC)을 사용한다. 세계 곳곳에서 쓰는 DDC는 언어학을 400에 두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KDC는 언어를 뒤로 미뤄 700에 놓았다. 또한 종교(200)에서 불교의 비중을 높이고, 문학(800)에서 한국 소설이나 시와 같은 분류 항목도 늘렸다.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KDC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와도 같은 청구기호는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만든다. 청구기호에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415번 대의 책은 어떤 책일까? 맨 앞자리가 4인 걸 보면 자연과학 쪽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400번 대에서 둘째 자리가 1인 것은 수학이다. 수학은 자연과학 중에서 으뜸가는 학문이라는 뜻에서 1번을 차지한다. 세 번째 자리는 수학의 세부 분류를 뜻하는데, 기하학은 산수, 대수학, 확률과 통계, 해석학에 이어 5번에 해당한다. 즉 도서관에서 415번 대의 책장에 꽂힌 책은 제목을 보지 않아도 기하학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자리 숫자 다음에 나타나는 소수점 아래 숫자는 더 구체적인 분류를 나타낸다. KDC 분류표에는 소수점 뒷자리를 분류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학문이 끝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분야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분류표도 7~8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한다. 2013년 현재 KDC는 6번째 개정판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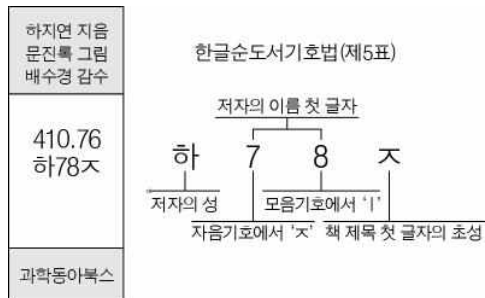
분류기호 만들기

도서관에 [중학수학 개념 별거 아니야]라는 책이 새로 들어왔다.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분류할까? 먼저 수학책이므로 맨 앞자리는 자연과학을 뜻하는 4, 그 다음은 수학의 1이 붙는다. 이 책은 수학의 특정 분야가 아닌 수학 이론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셋째 자리는 0이다. KDC 표준구분표에서는 자습서나 문제집을 소수점 아래 076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 책의 분류기호는 410.76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청구기호는 분류기호에 해당한다. 주소로 치면 '구' 정도까지 나눈 셈이다. 더 구체적인 주소는 분류기호 다음에 오는 도서기호로 알 수 있다. 도서기호는 저자기호라고도 하는데, 글쓴이의 정보에 책 제목을 더해 만든다.

도서기호 만들기

도서기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소개한다. [중학수학 개념 별거 아니야]의 저자는 '하지연'이다.



<그림 1>

<그림 1>은 <표 3>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에 따른 것이다. 저자의 성에 해당하는 '하'를 그대로 쓰고 이름의 첫 자인 '지'에서 'ㄷ'에 해당하는 7과 '이'에 해당하는 8을 붙여 '하78'로 쓴다. 단, 이름 첫 자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기호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책 제목의 첫 글자인 '중'에서 초성인 'ㄷ'을 붙인다. 결국 '하78ㄷ'이 된다.

자음기호		모음기호	
		초성이 ㄹ이 아닌 글자	초성이 ㄹ인 글자
ㄱ ㄲ 1	ㅇ 6	ㅏ 2	ㅑ(ㅓㅕㅗ) 2
ㄴ 19	ㅕ ㅖ 7	ㅓ(ㅕㅗ) 3	
ㄷ ㄸ 2	ㅗ 8	ㅕ(ㅓㅕㅗ) 4	ㅑ(ㅓㅕㅗ) 3
ㄹ 29	ㅙ 87	ㅓ(ㅓㅕㅗㅙ) 5	ㅑ(ㅓㅕㅗㅙ) 4
ㅁ 3	ㅛ 88	ㅕ(ㅓㅕㅗㅙ) 6	ㅑ(ㅓㅕㅗㅙㅑ) 5
ㅂ ㅃ 4	ㅜ 89	ㅡ(-) 7	
ㅅ ㅆ 5	ㅠ 9	ㅣ 8	ㅣ 6

<표 3>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제5표)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서에 따라 별칭 기호나 부가 기호가 없을 수도 있다.
- ② 도서관에서 소설을 검색하면 8번으로 시작되는 청구기호가 검색될 가능성이 높다.
- ③ '어410.913'에 해당하는 책은 '410.914'에 해당하는 책의

왼쪽이나 위층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④ 분류 기호의 맨 앞자리는 0~9까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류의 역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부가 기호가 '-2=3'일 경우 해당 도서의 연속물의 제2권이 며 이 책을 3권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2. (가)와 (다)를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의 도서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역사의 역사 - 유시민 저
- ㉡ 수학의 정석(확률과 통계) - 홍성대 저
- ㉢ 썬 수학(기하) - 홍범준 저
- ㉣ 초등 수학 교과서 개념 완성(참고서) - 김채원 저
- ㉤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 나찬연 저

(단, 별칭기호와 부가기호는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① KDC와 DDC 중 어느 것이 적용되더라도 ㉠의 분류기호는 '9'로 시작된다.
- ② KDC와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르면 ㉡의 분류기호는 '413.76홍54ㅅ'이다.
- ③ KDC와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르면 ㉢의 청구기호는 '415.76홍44ㅅ'이다.
- ④ KDC와 한글순도서기호법에 따르면 ㉣의 청구기호는 '410.76김83ㅅ'이다.
- ⑤ KDC와 DDC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의 청구기호는 달라진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좋은 책은 어떤 책들을 말하는가? 신문과 잡지, 방송과 인터넷 등의 매체가 소개하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책과 덜 좋은 책을 구별해 내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물론 모든 책을 가늠할 수 있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잣대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렇지만 좋은 책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좋은 책이란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세상을 밝게 보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세상을 살아가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영혼까지 맑게 하는 책이 있다면 그런 책을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과 머리에 진한 흔적을 남겨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좋은 책이다.

(다) 좋은 책의 목록에는 우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고전(古典)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에서 시작해서 음악과 미술, 조각과 건축, 의상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들을 이르는 말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고전은 (㉠)을 말한다. 걸작과 명저 가운데서도 세월의 흐름을 견디어 살아남은 책,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읽히는 책,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읽히는 책이 고전이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읽는 책을 말한다. 고전은 주어진 시대,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관과 세계관, 사상과 철학, 취향과 감정, 고뇌와 희망을 한 권의 책에 압축한 지적 산물의 최고봉이다. 그러므로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이기에 앞서 한 문명권과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우리는 인류가 남긴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의 고귀한 일원임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머나먼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양과 서양에서 살아남은 고전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사유와 지혜, 지식과 정보가 들어 있다. 동서고금의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혀 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3. 밑글에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고전을 통해 주어진 시대의 특정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알 수 있다.
- ② 현대인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실용 독서와 학업 독서라고 할 수 있다.
- ③ 고전은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앞서, 한 작가의 고유한 창작이라 할 수 있다.
- ④ 넓은 의미의 고전은 책을 제외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

술 작품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좋은 책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4. (나)와 관련지어 다음을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면 위안이 된다.
-키케로

•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 스스로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
-트웨인

• 가난한 자는 책 때문에 부유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책 때문에 귀해진다.
-‘고문진보’

- ① 키케로 :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이든 노인이 되어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 ② 키케로 : 청년들에게는 정서적 성장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키케로 : 힘든 상황일 때는 정신적 위로나 안정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④ 트웨인 :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⑤ ‘고문진보’ : 부유한 사람은 독서를 통해 인격적·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성신고등학교 (울산)

5.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목적의 독서로 적절한 것은?

- ① 공부를 위해 하는 독서.
- ② 정서적 안정이나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는 독서.
- ③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하는 독서.
- ④ 인간과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는 독서.
- ⑤ 타인과의 관계 유지·발전을 위한 개인적 지식 습득을 위해 하는 독서.

목표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주제 통합적 독서의 개념

같은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 화제에 대해 비판적·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예 '사랑'을 화제로 한 문학 분야, 과학 분야의 글들을 찾아 비교하여 읽은 후 이를 종합하여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재구성하는 것

● 주제 통합적 독서의 장점

-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음으로써 편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음.
-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다양한 형태의 글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독서 환경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음.

● 주제 통합적 독서의 방법

- ① 화제와 관련된 질문 수립하기
- ②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글 찾기
- ③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기
- ④ 질문의 답으로 재구성하기

본문 연구

■ 걷기의 발견

가 걸어서 곳 끝까지

● 제재 개관

갈래	수필(에세이)	성격	감각적, 예찬적, 비유적
제재	걷기		
주제	걷기의 인문학적 의미와 가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을 중심으로 친숙한 소재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도함. • 걷는 행위를 깊이 있게 사유하여 걷기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제시함. 		

● 글의 구성

본문 1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걷기
본문 2	이상적인 보행
본문 3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 됨.
본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은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마음을 여행하게 함. • 마음을 성찰하는 수단인 동시에 목적인 보행의 가치

● 내용 정리

■ 글쓰기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

-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
 ⇨ 힘든 상황과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 일을 쉬거나 하기 위해서
 ⇨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

■ '걷기'에 대한 글쓰이의 생각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 •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 • 존재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균형 • 생각과 경험과 도착 외에는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
이상적인 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처럼 몸과 마음과 세상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를 의미함. •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음.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경을 지나가는 보행을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기도 함. • 보행을 통해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구체화할 수 있음.
보행은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마음을 여행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보행은 여행과 유사함. • 보행을 통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경이와 해방과 정화'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함.

나 걷기의 건강학

● 제재 개관

갈래	수필(에세이)	성격	설명적, 객관적
제재	걷기 운동		
주제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및 유의 사항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걷기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설명함. • 무작정 걷기 운동이 아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걷기 운동을 권유함. 		

● 글의 구성

머리말	걷기 운동의 장점
본문	걷기의 바른 자세와 방법
	걷기의 종류와 걷기 운동의 방법
	걷기 운동 전후에 실시하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걷기 운동을 할 때의 주의점
맺음말	꾸준한 걷기 운동의 장점 및 효과

● 내용 정리

■ 걷기 운동의 장점

-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정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임.
- 운동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도 좋음.
-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 없이도 가능함.

■ 걷기 운동의 방법

- 올바른 자세로 속보로 걸으며, 보폭은 평상시보다 약간 넓게 함.
 - 속보: 1시간에 6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
- 일주일에 3~4일, 운동 시간은 40~50분 정도로 함.
- 걷기 운동 전후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실시함.

■ 걷기 운동 시 주의할 점

- 연령이나 체력 수준에 맞는 강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함.
- 언덕길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피함.
-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보다는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격적인 걷기 운동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 몸 상태에 맞는 강도로 운동을 함.

■ 걷기 프로그램의 장점 및 효과

-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로 장시간 걷는 것이 좋음.
-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 줌.
-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줌.

다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 제재 개관

갈래	논설문	성격	주관적, 설명적, 실증적
제재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		
주제	국내외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과 비교하여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국내의 문제를 제기함. • 미국의 '워크 스코어'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함. • 우리나라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함. 		

● 글의 구성

서론	최근 국내에서도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라는 과제가 주목 받고 있음.
본문	일상생활 속 보행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부족한 상황임.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려는 외국 도시의 노력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워크 스코어'
결론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의 노력 촉구

● 내용 정리

■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관심

- 도시 사업에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함.
-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 없이도 가능함.

■ 보행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심의 차이

우리나라	산책로와 달리 골목길, 통근길, 통학로 등 일상 속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미미함.
↕	
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음. •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계획에 활용한 사례도 있음.

■ 걷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 도시의 노력

-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바꾸는 추세임.
- 걷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지역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
- 미국의 경우,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치화·점수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 스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 국내의 보도 환경을 걷기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현재의 도로 환경의 분석 및 걷기 좋은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의 구축과 이에 대한 정보 제공
-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

■ 글쓴이의 주장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산 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과 도박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노동이라고 할까.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곳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났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는 방법이라고 할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경이와 해방과 정확을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매곡고등학교 (경기)

1.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육체적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이다.
- ② 걷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여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③ 존재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 ④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 ⑤ 걸음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곡고등학교 (경기)

2.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야 한다.
- ② 장소를 넘나들고 시간을 넘나들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한다.
- ③ 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걷기 자체가 목적지가 된다.
- ④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의식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 ⑤ 걷기를 통해 생각을 하게 되고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동이 된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과 <보기>의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 데 더없이 좋다.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뼈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 준다.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걷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 모두 걷기가 의도적 행위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으로서의 걷기가 지니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달리 <보기>는 독자들에게 걷기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윗글은 걷기의 바람직한 방법보다는 걷기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열췁 십 킬로미터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십 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생산 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노동이라고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 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이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 처럼,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처럼,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 있다.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 있다. 꽃 여기저기에 흐드러지게 피는 보라색 루핀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냉이꽃이 자라고 있었다.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났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도 생각났다.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다.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을 넘나드는 일이 더 쉬워지는 것 같다. 계획에서 추억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고 할까.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할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가는 풍경의 한 부분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 말이다.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속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행의 경이와 해방과 정확을 얻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아니,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나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하다.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하다.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이다.

- 레베카 솔닛, '걸어서 꽃 끝까지'

(나)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우선 살피고,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한다.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 특히 열량을 소비하는 데 더없이 좋다.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가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 폐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 준다. 또한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우정을 쌓게 하여 정신적·사회적으로 활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박원하, '걷기의 건강학'

(다)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 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 정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횡단보도 등의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한편 민간에서는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워크 스코어(Walk Score)'가 거리의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워크 스코어는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 주소지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범위에 이르는 보행 환경을 0~100점 단위로 점수화하여 웹 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 발표한다. 기본적으로 워크 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 시설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지점에서 도보 5분 거리(약 0.4킬로미터) 이내에 편의 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중략)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보도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도시 계획에 적극

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황진욱, 강정은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대현고등학교 (울산)

4. (가) 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행은 걸음이 반복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리듬이 생긴다.
- ② 보행을 통해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
- ③ 이상적인 보행은 육체의 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이다.
- ④ 걷기는 존재하는 것과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 ⑤ 외적 결과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대현고등학교 (울산)

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나) 글은 인문학적 입장의 수필이다.
- ② (나)를 통해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 수 있다.
- ③ (나)는 걷기 운동 전에 점검해야 할 점을 알리며 걷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④ (다)는 꾸준한 걷기 운동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다)는 객관적 성격을 가진 글로 국내의 워크스코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현고등학교 (울산)

6. ㉠~㉣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 : 걷기 운동 전 자신의 호흡기 기능을 점검하고 상태를 살펴라고 권유하고 있다.
- ② ㉡ :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효과가 있음 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 :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 : 건강 도시를 목표로 삼아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예로 들 수 있다.
- ⑤ ㉣ :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의 노력을 촉구하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대상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추론하고 있다.
- ③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중심 화제의 장, 단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정 개념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그것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8.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걷는 일'은 사색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용하다.
- ② '여행'은 '눈의 볼거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걷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생각하는 일'은 '생산 지향적 문화'에서 외적인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④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걷기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⑤ '걷는 것'은 몸을 쓰지만 가시적 생산물을 만들진 못하므로 '일하는 것과 일 하지 않는 것'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9. (가)에서 이상적인 보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경 속을 지나감으로써 하나의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을 막아준다.
- ② 몸과 세상, 마음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 ③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걸으며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 ④ 걷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자리걸음도 이상적인 보행이 될 수 있다.
- ⑤ 이상적인 보행을 하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사색할 수 있다.

목표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사실적 읽기의 개념

글에 드러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읽는 활동.

● 사실적 읽기의 특징

- 가장 기본적인 읽기 활동으로 글 중심의 읽기 방법임.
- 글의 내용 측면과 형식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내용 측면은 글에 제시된 정보와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임.
 - 형식 측면은 글의 구조, 글의 전개 방식,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임.

● 사실적 읽기의 방법

①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 중심 내용은 글을 통해 글쓴이가 나타내려고 하는 핵심적인 생각이고, 주제는 중심 내용을 더 압축한 것임.
-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때에는 화제에 대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함.
-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구분, 각 내용들 사이의 관계 파악, 선정한 내용의 재조직의 과정을 거치는 요약하기를 통해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음.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기

글의 구조 파악하기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인과), 문제와 해결, 열거 등의 방식이 있음.	글의 처음, 중간, 끝의 구분.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도 불림.
주로 글의 일부분에서 사용됨.	글 전체에 걸쳐 사용됨.
글의 화제나 내용, 글의 구조를 알려 주는 담화 표지 등에 주목해야 함.	글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글 전체의 논리 전개에 주목해야 함.

본문 연구

■ 걱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시사적, 설명적, 분석적
제재	걱정 기술	주제	걱정 기술의 개념과 특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의 위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걱정 기술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부각함. • 정의, 열거, 문제와 해결, 대조의 구조를 통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글의 구성

머리말	적정 기술의 등장 배경
본문	적정 기술의 개념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조건 현대 사회의 위기와 적정 기술의 필요성
맺음말	한국형 적정 기술의 마련 및 정착에 대한 기대

● 내용 정리

■ 적정 기술이 처음 등장한 사회적 배경

- 1960년대 중반, 제3세계의 경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남.
- 처음에는 제3세계 빈곤국의 필요에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인 ‘중간 기술’로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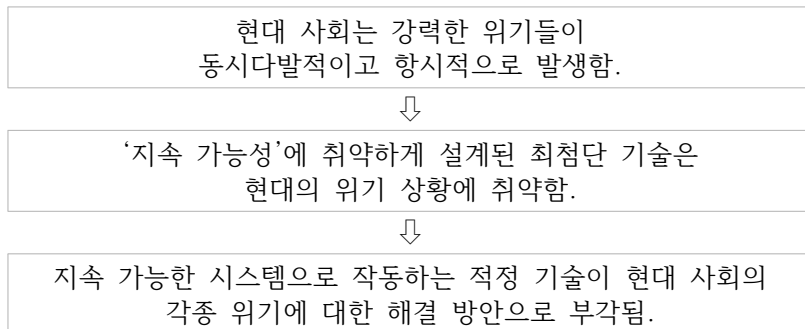
■ 적정 기술에 대한 정의

- 바커: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

■ 적정 기술의 일반적 조건과 핵심 조건

- ①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함.
 - ②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함.
 - ③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④ 적정 기술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은 간단해야 함.
 - ⑤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함.
 - ⑥ 사람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 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함.
 - ⑦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함.
- ⇒ 핵심 조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되어야 함.

■ 현대 사회의 위기와 적정 기술의 필요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소수의 시민운동가나 대안 운동가에게만 관심의 대상이었던 적정 기술이 이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적정 기술이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3세계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자, 전통 사회의 기존 조건들과 기술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경제학자 슈마허는 제3세계 빈곤국의 필요에 적합한, 값싸고 소박한 기술 개념으로 '중간 기술'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적정 기술 운동의 기초가 된 그의 제안은 종종 '대안 기술' 또는 '적정 기술'로 표현되었는데 지금은 후자의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나) 이후 적정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바커는 적정 기술을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였다. 그는 의식주, 건강,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여 주지 못하는 기술은 적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하위 20퍼센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경제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은 적정 기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의 국립적정기술센터는 적정 기술을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기술이 지역적·문화적·경제적 조건과 양립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물질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도구와 과정들을 유지하고 작동할 수 있을 때, 그 기술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이처럼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개념이 변하기도 하지만,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꼽힌다. 첫째, 적정 기술에 드는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저렴한 비용은 현지인에게 적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둘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 기술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수입해야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셋째,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적정 기술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적정 기술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고 사용 방법이 간단해야 한다. 제품이 너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이용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 주민이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적정 기술은 원칙적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대중에 의한 생산을 지향한다. 가급적 지역에 있는 생산 시설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사람들의 협동작업을 이끌어 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적정 기술의 사용은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증대하여 개인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지역과 시대에서 적정한 기술이 다른 지역과

시대에서는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정 기술은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는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적정 기술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추가될 수 있다. 그런데 적정 기술이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해도, 해당 적정 기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그것은 적정 기술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적정 기술의 필요성은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관련된다. 현대 사회에는 강력한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후 변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성장 위주 경제 발전의 부작용, 석유와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은 이제 항시적인 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위기는 최첨단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라)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것은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최첨단 기술은 중앙 집중적이고 거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려면 과도한 에너지 소비와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기가 하루 동안 끊길 때 평범했던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팔팔 쏟아지는 상수도도 중단되었을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최첨단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

(마) 반면에 적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여 작동한다. 적정 기술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통해 중앙 집중식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도모한다. 이런 점에서 적정 기술은 위기 상황에 취약한 최첨단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각종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40~50년의 적정 기술 역사를 지닌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적정 기술 관련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적정 기술이 기존의 방법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적정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선진국의 적정 기술 역사에서 교훈을 얻음으로 써 인류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한국형 적정 기술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 ① 적정 기술의 조건을 열거하면서 적정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1)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 ② 적정 기술의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현대 사회의 항시적 위기 및 최첨단 기술의 한계가 적정 기술의 필요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④ 적정 기술의 개념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적정 기술의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 ⑤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취약한 이유를 밝히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최첨단 기술의 미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

- ① 적정 기술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중반부터 있었으며, 적정 기술에 대한 서구 선진국들의 관심은 이미 40~50년 전부터 있었다.
- ② 슈마허가 제시한 중간 기술의 개념과 달리 미국의 국립적정 기술센터는 저렴한 비용을 적정 기술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 ③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현대 사회의 강력한 위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 기술은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필요하다.
- ④ 각 지역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는 적정 기술은 중앙 집중식 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자립적 생존을 지향한다.
- ⑤ 적정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 풀지 못하는 모든 사회 문제들을 급진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있으므로 한국형 적정 기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의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의 [A]가 적정 기술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었는지 <보기 2>의 조건에 맞춰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보기1>

[A]대나무 페달 펌프는 기존의 비싼 펌프 대신에 저렴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페달식 펌프로 가난한 농부들에게 건기에 지하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관개시설이다. 대나무 페달 펌프는 두 금속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힘을 이용하여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한다. 대나무 페달 펌프는 지역의 대장간에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지역의 시장형성이 가능하며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14억 달러의 농가 순이익을 창출하였다. 2006년 국제개발 기업을 기획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70만대 이상이 팔렸다.

<보기2>

- [A]의 어떤 특징이 적정 기술의 조건에 부합한지 설명할 것.
- 각 특징이 적정 기술의 몇 번째 조건인지 밝힐 것.
- 아래의 예시를 제외한 특징을 예시와 같은 형식의 문장으로 서술할 것.

예) [A]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기술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었다.

낙동고등학교 (부산)

4.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적정기술이 등장한 배경을 통해 최근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증대 되어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 적정기술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바커의 견해로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적정기술이 갖춰야 할 일곱 가지 조건을 열거하면서 적정 기술의 특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라) : 최첨단 기술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와 유사한 상황을 유추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앞의 내용과 대조하여 현대 사회의 위기 해결 방안으로서의 적정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적정기술의 사례가 아닌 것은?

- ①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
- ②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 주는 휴대용 정수 빨대
- ③ 수원(水源)으로부터 물을 쉽게 끌어올 수 있는 펌프
- ④ 전기 없이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향아리 냉장고
- ⑤ 누구나 쉽게 바닥에 굴러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식 물통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7. ㉠~㉢에 들어갈 접속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 |
| ① 그런데 | 그러나 | 따라서 |
| ② 그런데 | 그러나 | 반면에 |
| ③ 그런데 | 그리고 | 반면에 |
| ④ 그리고 | 그러나 | 따라서 |
| ⑤ 그리고 | 그리고 | 반면에 |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8. <보기>의 ㉠~㉢에 사용된 전개 방식을 각각 쓰고, 윗글에서 ㉠~㉢의 전개 방식이 사용된 부분을 하나씩 찾아 해당 문단과 ‘첫 어절~끝 어절’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 낼 수 없다.

㉡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의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조건>

- ㉠~㉢에 사용된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각각 서술할 것.
- 윗글에서 ㉠~㉢의 전개 방식이 사용된 부분을 하나씩 찾아 해당 문단과 ‘첫 어절~끝 어절’을 찾아 적을 것.

- 하나의 전개 방식에 두 가지 이상의 구절을 찾아 적은 경우 첫 번째 것만 채점함.
- 다음 문장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예) ㉠은 ‘열거’의 전개 방식으로 (다)의 ‘첫째~필수적이다.’에 사용되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9. ㉠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찾고, 이와 동일한 전개 방식이 사용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해 온 다문화주의를 정의해 본다면, 하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집단 또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들 집단의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맥락에서 이들 집단이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가치관과 행동의 체계라고 요약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요소로 논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첫째,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 둘째,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것, 셋째, 다른 문화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장려하는 것, 넷째, 앞의 세 가지 요소를 포용하는 가치관과 행동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보기>

㉠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을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고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내용 전개 방식	<보기>
① 정의	㉠
② 분류	㉡
③ 분류	㉠
④ 분석	㉡
⑤ 분석	㉠

목표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추론적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추론적 읽기의 개념

글에 드러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추측하며 읽는 활동

● 추론적 읽기의 특징

글쓴이는 독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고, 글을 쓴 의도나 주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므로 독자는 글에 숨겨진 정보나 의미까지 추론하며 읽어야 함.

● 추론적 읽기의 방법

①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배경지식과 함께 담화 표지,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을 추론함.

②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추론하기

-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친교나 상호 작용 등으로 분류됨.
- 글의 종류, 글 전체의 내용과 글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함.

③ 숨겨진 주제 추론하기

광고문,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과 같이 주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글은 글쓴이의 입장, 글쓴이가 정한 예상 독자, 글의 화제나 대상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숨겨진 주제를 추론함.

본문 연구

■ 포고문

● 제재 개관

갈래	창의문, 포고문, 선언문	성격	현실 비판적
제재	벼슬아치들의 학정		
주제	보국안민을 기치로 봉기하는 뜻을 천명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적 윤리를 바탕으로 당시의 현실을 비판함. • 중국 고사의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함.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함. 		

● 글의 구성

처음	군신, 부자간의 인륜의 중요성
중간	간악한 신하들로 인해 무너져 내린 인륜
	벼슬아치들의 탐학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
끝	보국안민의 중요성 강조
	보국안민을 위해 봉기하는 뜻을 밝힘.

● **내용 정리**

■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

군신의 인륜, 부자의 인륜이 잘 지켜져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하는 세상

■ **글을 쓴 당시의 현실의 모습**

임금	신하가 된 자들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함.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며 충신을 모함하고 백성을 갈취함.

■ **글쓴이가 관자의 말을 인용한 의도**

관자 사유(四維: 예, 의, 엄, 치)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

⇒ 예, 의, 엄, 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금의 형세는 이보다 더 심하다고 비판하면서, 당시의 현실이 나라가 멸망할 만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함.

■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탐관오리들을 징치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많은 백성들의 뜻을 모아 봉기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

■ **이 글의 표면적 주제와 숨겨진 주제 의식**

- 표면적 주제: 보국안민을 기치로 봉기할 것을 천명함.
- 숨겨진 주제 의식: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탐관오리들을 징치하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해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의 날을 꼽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런 선비의 간언을 묘사스런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자가 말하길 ‘사유(四維)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 이하, 아래로는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을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파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 나 뇌물이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를 채운다. 나라에는 부채가 쌓여 있는데도 갚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탐학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곤궁치 않으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녹위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 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 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추수하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1. 윗글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신의 인륜과 부자의 인륜이 국가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간임을 밝히고 있군.
- ② 관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조선의 현실이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임을 부각하고 있군.
- ③ 상하를 막론하고 벼슬아치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 백성들의 곤궁함이 극에 달한 실정이군.
- ④ 간악한 신하들의 아부와 꾀에 넘어가 지혜롭고 총명한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비판하고 있군.
- ⑤ 임금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백성들이므로 나라의 형세가 기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음을 봉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군.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내포된 주제 의식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보국안민’은 이 글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어이다. ‘보국안민’은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고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할 때에 외세로부터 국권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계책이다. 그 후 최시형은 조선 조정과의 평화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보국안민’을 “나라를 이롭게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에 ‘보국안민’은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조건>

- ‘백성, 탐관오리, 나라’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할 것.
-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지금 우리 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해 다스린다면 예전 훌륭한 임금들의 교화와 치적의 날을 꼽아 기다려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런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자가 말하길 “사유(四維)가 벼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 바야흐로 지금의 형세는 예전보다 더욱 심하다.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 아래로는 방백 수령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위태로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몸을 살찌우고 집을 윤택하게 하는 계책만을 몰두하여 벼슬아치를 뽑는 문을 재물 모으는 길로 만들고 과거 보는 장소를 사고파는 장터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허다한 재물이나 뇌물이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사사로운 창고를 채운다. 나라에는 빛이 짙어 있는데도 깊으려는 생각은 아니하고 교만과 사치와 음탕과 안일로 나날을 지새워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어서 온 나라는 어육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진실로 수령들의 탐학 때문이다. 어찌 백성이 곤궁치 않으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녹원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 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고 사니 어찌 나라가 망해 가는 꼴을 좌시할 수 있겠는가.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합께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축수하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야탑고등학교 (경기)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라의 근간을 유학적 덕목에서 찾고 있다.
- ②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매관매직(賣官賣職)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임금과 신하의 자질이 부족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 ⑤ 국난을 당하여 의병으로 일어날 것을 널리 호소하는 글이다.

야탑고등학교 (경기)

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학식이 높은
- ② ㉡ - 날카로운 칼날
- ③ ㉢ - 인품이 훌륭한 벼슬아치
- ④ ㉣ -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와 벼슬자리
- ⑤ ㉤ - 입신양명(立身揚名)과 거리가 먼 이름 없는 백성

야탑고등학교 (경기)

5.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영하호(嶺下戶) 백성들은 가련하고나.
 큰 깃대 앞세우고 쌍마(雙馬) 수레 타고 오니
 촌마을 사람들 모조리 동원하네.
 닭처럼 개처럼 내몰고 부리면서.
 소리치고 꾸중하기 범보다 더 심하네.
 예로부터 가마 타는 자 지킬 계을 있는데.
 지금은 이 계을 흠같이 버려졌네.
 발 갈다가 징발되면 호미 내던지고
 밥 먹다가 징발되면 먹던 음식 뱉어야 해.
 죄 없이 옥 먹고 꾸중 들으며,
 일만 번 죽어도 머리는 조아려야.
 병들고 지쳐서 험한 고비 넘기면,
 그 때야 비로소 포로 신세 면하는구나
 사또는 일산(日傘) 쓰고 호연(浩然)히 가버릴 뿐.
 한 마디 위로의 말 남기지 않네.
 기진 맥진 눈발으로 돌아오면
 지친 몸, 신음 소리 실낱 같은 목숨이네.
 이 가마 메는 그림 그려
 임금님께 돌아가서 바치고 싶네.

-가마꾼, 정약용-

- ① 윗글의 '방백수량'은 <보기>의 '계율'을 준수하고 있다.
- ② 윗글의 '사유'는 <보기>의 '사또'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 ③ 윗글의 '만백성'은 <보기>의 '촌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다.
- ④ 윗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화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일치한다.
- ⑤ <보기>의 화자는 윗글의 '백성'을 회화의 미학적 대상으로 여긴다.

부산강서고등학교 (부산)

6. 글쓴이가 윗글에서 관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를 <보기>를 참고하여 말하십시오.

<보기>

관중이 제나라 재상이 되어 정치를 맡자 보잘것없는 제나라가 바닷가에 있는 이점을 살려 교역을 통해 재물을 쌓아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백성과 더불어 좋고 나쁜 것을 나누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임금이 법도를 실천하면 육친(六親 :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아내, 자식)이 굳게 결속하고, 사유(四維 : 예, 의, 염, 치)가 펼쳐지지 못하면 나라는 멸망한다.”

-시마천, 김원중 옮김, 《사기 열전 1》에서

- <조건>
- ㉠ <무장포고문>을 쓰기 전의 사회상이나 시대상을 언급해야 합니다.
 - ㉡ 인용의 이유를 정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 모든 서술형은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부산강서고등학교 (부산)

7. 윗글에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조건>

- 윗글에 쓰인 단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십시오.

부산강서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을 쓴 목적으로 조건에 맞춰 쓰시오.

<조건>

글을 쓴 목적을 쓰되

- ㉠ '국난'의 원인을 써야합니다.
- ㉡ 봉기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을 정확한 단어로 써야 합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서울)

9.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춰 서술하십시오.

<보기>

'보국안민'은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내고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할 때에 외세로부터 국권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계책이다. 그런데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에 '보국안민'은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나라를 바로잡고'라는 구절로 보아, (가)의 작가는 자신들이 사는 시대의 문제를 (㉠)로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는 것을 (가)에서 표현하고 있다.

- <조건>
- ㉠, ㉡에 들어갈 내용을 문장 형태로 서술할 것
 - ㉡의 경우, 주어를 분명히 밝힐 것

목표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글에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비판적 읽기의 개념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글쓴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독자가 판단하며 읽는 활동

● 비판적 읽기의 특징

글의 내용, 표현 방법, 인용 자료 등에 과장·강조되거나 축소·생략된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독자는 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함.

● 비판적 읽기의 방법

① 글쓴이의 관점과 글의 내용 판단하기

내용의 타당성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함.
내용의 공정성	글의 주제나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 판단함.
자료의 신뢰성	글에 제시된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출처가 명확하며 인용 과정에서 잘못은 없는지 판단함.
자료의 적절성	글에 사용된 자료가 글의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필요한 위치에 적절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지 판단함.

② 글의 표현 방법 판단하기

글에 쓰인 표현 방법이 글의 목적과 내용, 글이 쓰인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 효과적인지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함.

③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판단하기

글에 숨겨진 의도, 글에 전제되거나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반영한 사회·문화적 이념을 판단하며 읽어야 함.

본문 연구

■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 제재 개관

갈래	논설문	성격	비판적, 시사적
제재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		
주제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위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함. 대조, 비유 등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설득의 효과를 높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임. 		

● 글의 구성

서론	갈등의 합리적 해결 수단으로서의 논쟁 논쟁에 대한 한국인과 서구인의 대조적 인식과 태도
본론	좋은 논쟁의 의미 - 만남과 부딪침을 통한 갈등 해소 논쟁 부재의 결과 -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 우리 사회의 토론 문화의 현실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
결론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논쟁 활발한 논쟁의 필요성 -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 강화

● 내용 정리

■ 글을 쓰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

사회·문화적 맥락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
우리 사회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쟁에 대해 부정적임. • 치열하게 논쟁하거나 토론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움. • 논쟁과 토론 부재로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가 강화됨.
문제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쟁과 토론의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의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의견을 내며 생산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효과

대조	논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과 서구인들의 시각을 대조하여 논쟁의 필요성을 강조함.
비유	메아리 방에 사는 사람, 동종 교배에 빚대어 논쟁하지 않는 사람의 부정적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냄.
인용	‘밀’, ‘선스타인’ 등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함.
질문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하여 논쟁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한 독자들의 성찰을 촉구함.

■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이념

- 논쟁을 통해 소통하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함.
- 다수의 의견이나 통설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거나 이견을 묵살해서는 안 됨.
-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하기보다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기꺼이 논쟁해야 합리적 사회를 이룰 수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무리 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갈등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가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갈등을 품고 삭이고 드러내지 않아야 그릇이 크다고 여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했고, 소크라테스는 ‘산파법’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의 정당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 훌륭한 정책들을 탄생시켜 왔고,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감별해 왔다.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그러자면 논점이 평평하게 부딪쳐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침’에 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쓸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중략>

이처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밀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의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억박 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는 다수의 의

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묵살해 버리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중략>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의견 양극화와 쓸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수일고등학교 (경기)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생산적 논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집단 편향과 쓸림현상의 문제점을 최근의 연구 결과로 뒷받침하고 있다.
- ③ 한국인들과 서구인들의 시각 차이를 대조하여 논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쟁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문답 형식을 사용하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일고등학교 (경기)

2. ㉠이 <보기>의 ㉡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 ① 소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발언해야 해.
- ② 토론과 논쟁을 해야 중간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 ③ 의견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적 논쟁에 참여해야 해.
- ④ 전체를 위한 합리적 정책을 위해 참는 것도 미덕이라고 할 수 있지.
- ⑤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라도 침묵하는 것은 좋지 않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무리 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갈등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가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갈등을 품고 삭이고 드러내지 않아야 그릇이 크다고 여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했고, 소크라테스는 ‘산파법’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의 정당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 훌륭한 정책들을 탄생시켜 왔고,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감별해 왔다.

(나)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침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그러자면 논점이 평평하게 부딪쳐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침’에 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라)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맞부딪쳐 조목조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찬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이유를 나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유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밀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억박 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묵살해 버리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

(마) (A)이(가) 두꺼운 사회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게 된다.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이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제목을 붙여 단락의 핵심 내용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절충하여 종합하고 있다.
- ③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

목표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글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깨달음을 수용하며 감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개념 정리

● 감상적 읽기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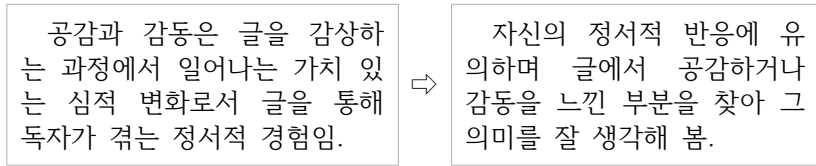
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활동. 즉 글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끼고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로 읽는 것

● 감상적 읽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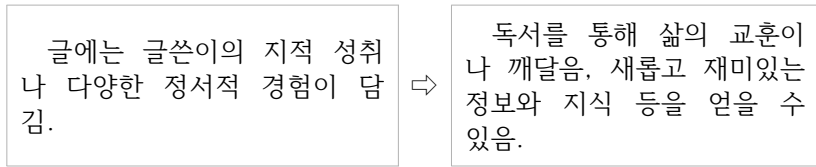
- 글을 읽으면서 기쁨, 즐거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감정을 정확함.
-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가치를 통해 삶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어 삶을 성숙하게 함.

● 감상적 읽기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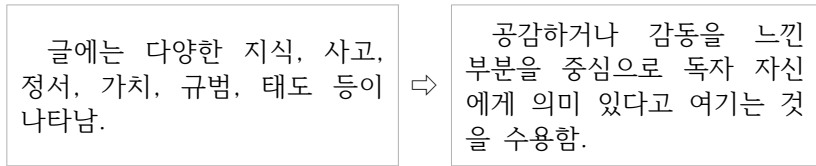
①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② 깨달음이나 즐거움 얻기



③ 글을 독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본문 연구

■ 꽃 출석부 1

● 제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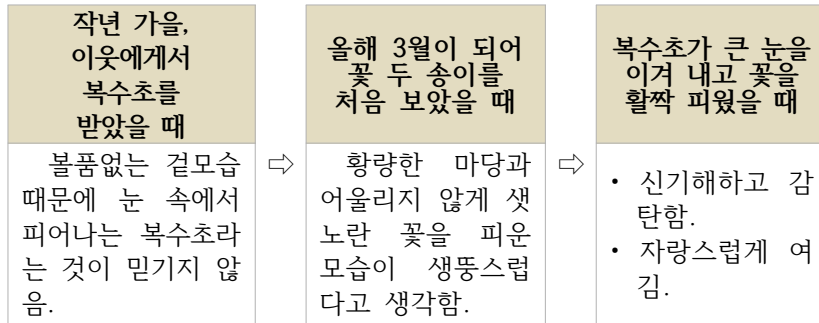
갈래	수필	성격	체험적, 사색적
제재	복수초, 꽃 출석부		
주제	어려움을 이겨 내고 때를 지켜 피어나는 꽃들을 기억하고 기다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에서 꽃을 기르는 글쓴이의 경험을 소재로 함. ●글쓴이의 세심한 관찰력과 섬세한 감정이 드러남. ●머릿속에 꽃 출석부가 생겼다는 표현을 통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을 드러냄. 		

● 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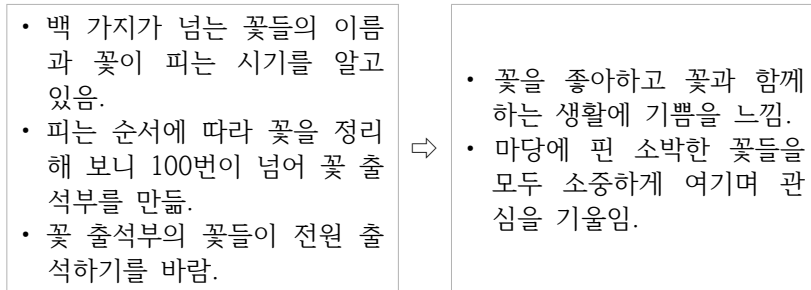
처음	작년 가을 복수초를 심었으나 곧 잊어버림.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3월 복수초가 꽃을 피우고 큰 눈 속에서도 죽지 않음. •올해 제일 먼저 꽃을 피운 복수초를 1번으로 하여 100번이 넘는 꽃 출석부를 만듦.
끝	<p>꽃들이 전원 출석하기를 기다리며 뿌듯한 행복함을 느낌.</p> <p>꽃들이 피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림.</p>

● 내용 정리

■ 복수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의 변화



■ 마당에 핀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개성

- 꽃들에 큰 관심과 애정을 쏟음. 꽃들이 잘 피어나기를 바라며 땅을 함부로 밟지 않고 여행도 잘 다니지 않음.
 - ⇒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가치를 둬.
- 꽃의 이름, 피는 시기, 특성을 잘 알고 있음.
 - ⇒ 섬세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켜 있고, 키는 땅이 닿을 듯이 작는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그 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생각해서 나누어 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 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이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동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문 밖의 눈은 쳐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그 작은 풀꽃의 머리갈 같은 뿌리가 땅 속 어드메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랑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 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무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저 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보여 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하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백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이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화이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있는지라 백 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백 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래도 나

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서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백 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가의 체험이 개성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꽃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 ③ 꽃 출석부란 말을 통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설렘을 표현하였다.
- ④ 꽃 출석부를 만들 정도로 글쓴이에게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꽃 출석부에 올라 있는 꽃들은 글쓴이가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소박한 것들이다.

모락고등학교 (경기)

2. ㉠~㉤ 중, 글쓴이가 ‘꽃들에 대한 애정이나 기쁨’을 드러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 ③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 있고, 키는 땅이 닿을 듯이 작는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그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생각해서 나누어 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 하게 되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샛노란 꽃이 두 송이가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뚱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샛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문 밖의 눈은 치워 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고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드메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기에 복수초는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 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무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저 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보여 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하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 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이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이고 그다음이 수선화이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이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백 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백 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백 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 박완서, 「꽃 출석부1」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것을 소재로 삼고 있다.
- ② 글쓴이의 감정을 절제하여 신비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꽃 출석부에 들어갈 다양한 꽃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 ④ 비유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 동사를 반복하여 글쓴이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수초 선물을 받기 전부터 복수초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꽃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일상 속에서 꽃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꽃의 세밀한 특징들과 꽃이 피는 순서까지 알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경우를 대비하여 메모를 바탕으로 출석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 ⑤ 자연의 순환과 그 질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그에 따른 자연물의 변화를 연결 지어 인식하고 있다.

● 내용 정리

■ 예술가로서의 르누아르의 삶

출생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남.
그림에 입문한 계기	리모주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함.
예술 작업에 임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으며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함. • 40세가 넘어서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도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 •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냄. • 49세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마비되어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음. •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렸음.

■ 르누아르 세 그림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

<피아노 치는 두 소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 건반을 치는 소녀와 옆에 서서 악보를 읽고 있는 소녀를 그림. • 배경의 거친 붓 터치와 여백은 전경의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 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줌.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한 투우사의 복장을 한 소녀가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림. •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붉은 기가 도는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움의 젊음이 느껴짐.
<화병의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 화병 안의 온갖 화려한 꽃들을 그린 그림임. •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전달함.

■ 르누아르의 삶과 그림에 나타난 인생관과 예술관

-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지님.
- ‘그림은 영혼을 씻어 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낙관적인 예술관을 지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인상주의이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에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그리고 르누아르가 있다.

(나) 르누아르(Renoir, Pierre-Auguste, 1841~1919)는 본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리모주 자기(瓷器)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한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으며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나이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다)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루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으로, 미완성작인 이 그림에서 배경의 거친 붓 터치와 여백은 전경의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 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왼손으로는 악보는 잡고 읽는 데 열중하고 있다.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는 의자 등을 잡고, 왼쪽 팔꿈치는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짚 채 앞의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 머리의 소녀가 있다. 이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배경의 추상적인 붓 터치는 여기 어여쁜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

(라)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에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우사 복장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의 정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을 뿐이고 이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의 예찬'이다.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그리고 붉은 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움의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마) ㉠ '그림은 영혼을 씻어 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맑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하였으며 그 후에는 퇴행성 류머티즘 증세가 심해져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화가의 작품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여 화가의 작품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화가의 개별 작품과 삶을 바탕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작품을 예로 들어 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를 비교하고 있다.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2. <보기>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단은?

<보기>

또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된 순간에도 그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거제옥포고등학교 (경남)

3. <보기>의 김득신과 바니타스 회화를 각각 르누아르와 관련하여 작가의 시선, 삶에 대한 관점, 소재의 차원에서 비교 또는 대조하여 조건에 맞게 설명하시오.

<보기>

- 후기 서민들이 등장하는 풍속화를 그린 김득신의 글미은 해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준다.
- 바니타스(vanits)는 '공허', '금방 지나감', '단명'을 뜻하는 라틴어 '바누스(van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해골, 모래 시계, 악기, 놀이 기구, 비눗방울 등의 상징적 소재들을 통해 존재와 인생의 덧없음, 세월의 무상함, 현재적 쾌락의 허무함 등을 강조하는 그림으로, 여기에는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30년 전쟁과 페스트가 창궐하며 야기된 불안이 반영되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은 정물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침식되거나 부패하는 물체의 표면과 그 위에 덮여 있는 먼지,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 시들어 떨어진 꽃송이들 등이 그것이다. 또한 노래나 연기, 음악과 같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소재들 또한 세월의 무상함을 암시한다.

<조건>

- ㉠ '김득신과 르누아르', ㉡ '바니타스와 르누아르'로 각각 나누어 설명할 것.
- 각각의 설명에는 소재, 작가의 시선, 삶에 대한 관점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포함할 것.
- 각각의 설명은 비교나 대조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서술할 것.

서인천고등학교 (인천)

4.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상자는 행복이 넘치는 순간이 올 때 그림을 감상하라는 뜻이다.
- ② 감상자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그림의 효용이라는 뜻이다.
- ③ 화가나 감상자 모두 영혼의 환희로 가득할 때 활동해야 된다는 뜻이다.
- ④ 그림은 어떤 경우라도 환희를 그려야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는 뜻이다.
- ⑤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든 감상자는 영혼이 씻기는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다.

부산강서고등학교 (부산)

5. 밑줄 친 단어 중,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람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
- ② 큰 트럭이 지나가자 흙먼지가 일어났다.
- ③ 불매 운동이 새로운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 ④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큰 탄성이 일어났다.
- ⑤ 그들은 차집에서 일어나 영화를 보러 나갔다.

성신고등학교 (울산)


6. <보기>를 읽고, 삶에 대한 관점의 차원에서 르누아르의 작품과 바니타스 회화의 차이를 서술하시오.(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적을 것.)

<보기>

바니타스(vanitas)는 '공허' '금방 지나감', '단명'을 뜻하는 라틴어 '바누스(van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해골, 모래시계, 악기, 놀이 기구, 비눗방울 등의 상징적 소재들을 통해 존재와 인생의 덧없음, 세월의 무상함, 현세적 쾌락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그림으로, 여기에는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30년 전쟁과 페스트가 창궐하며 야기된 불안이 반영되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은 정물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침식되거나 부패하는 물체의 표면과 그 위에 덮여 있는 먼지, 활짝 피어난 꽃들 사이에 시들어 떨어진 꽃송이들이 그것이다. 또한 노래나 연기, 음악과 같이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소재들 또한 세월의 무성함을 암시한다.

-마틸데 바티스티니, 조은정 옮김, 《상징과 비밀, 글미으로 읽기》에서



▲아드리안 반 위트레흐트, <꽃과 해골이 있는 정물>. 164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인상주의이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에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그리고 르누아르가 있다. 르누아르(Renoir, Pierre-Auguste, 1841~1919)는 본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리모주 자기(瓷器)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한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으며 오로지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나이 40세가 넘어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그는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을 살았다.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피아노 치는 두 소녀>는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록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 의뢰한 작품으로, 미완성작인 이 그림에서 배경의 거친 붓 터치와 여백은 전경의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 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의 소녀는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왼손으로는 악보는 잡고 읽는 데 열중하고 있다.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는 의자 등을 잡고, 왼쪽 팔꿈치는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짚 채 앞의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 머리의 소녀가 있다. 이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배경의 추상적인 붓 터치는 여기 어여쁜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에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우사 복장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의 정취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가 있을 뿐이고 이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의 예찬'이다.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이, 그리고 붉은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화병의 꽃>은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으로 우리 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 어린 붓 터치로 그린 꽃은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풍성하고 폭신한 느낌을 전해 준다.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한 르누아르가 여기서 그려 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의 화가들이 즐겨 그려 온 '바니타스(vanitas)' 주제의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하였다가 곧 저 버릴 꽃의 덧없음이 아니라,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다.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 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일러 준다. 이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 '그림은 영혼을 씻어 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그의 진지하고 낙관적인 예술 철학은 실로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그가 맑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온갖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극복했기 때문이다. 그는 1890년도 초부터 류머티즘으로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고 작업하였으며 그 후에는 퇴행성 류머티즘 증세가 심해져 다리가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또한 그의 어린 두 아들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부상을 입고 부인 알린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된 순간에도 그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의미인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그 자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었기에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 박혜원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글은 르누아르의 삶과 그가 그린 그림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네.
- ② 르누아르의 그림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과 대조적인 분위기가야.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르누아르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있네.
- ④ 르누아르의 예술 철학을 이해하고 그림을 감상한다면 감동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겠어.
- ⑤ 르누아르의 개인적 불행은 낙관적인 예술 철학으로 인해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되었구나.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8. 윗글에 제시된 르누아르의 그림과 <보기1>의 ㉠, <보기2>의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2개 고르면?



<<전체 정답>>

1-(1)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1.⑤ 2.④ 3.① 4.① 5.① 6.② 7.① 8.㉠ 독서의 목적은 정신적 성장이다. ㉡ 독서의 목적은 즐거움의 추구이다. ㉢ 독서의 목적은 창의적 사고이다. ㉣ 독서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9.독서의 목적, 글의 가치 10.④ 11.③ 12.④ 13.④ 14.④ 15.④ 16.② 17.㉠ 보편적 ㉡ 사유와 지혜 ㉢ 동서고금의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18.② 19.④ 20.② 21.③ 22.②

1-(2) 걷기의 발전

1.⑤ 2.③ 3.⑤ 4.③ 5.② 6.④ 7.⑤ 8.② 9.④ 10.⑤ 11.① 12.⑤ 13.⑤ 14.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15.② 16.③ 17.⑤ 18.① 19.② 20.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므로 걷기 자체가 목적지가 된다 21.② 22.⑤ 23.① 24.(1)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2) 걷기 환경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25.③ 26.③ 27.⑤ 28.① 29.편의시설이 많아서 좋다.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보행자 편의성이 좋다. 30.④ 31.② 32.② 33.① 34.① 35.③ 36.③ 37.③ 38.① 39.④ 40.② 41.⑤ 42.㉠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따라서 ㉤반면에 43.④ 44.③ 45.⑤ 46.벨리 포지의 교훈으로 가격 통제법 제정 금지를 결의하였다. 47.① 48.③ 49.③ 50.④ 51.③

2-(1) 적정 기술이란 무엇인가

1.①③ 2.②⑤ 3.1)[A]는 현지에서 나는 재료인 대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기술의 두 번째 조건을 갖추었다. 2) [A]는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적정 기술의 네 번째 조건을 갖추었다. 4.④ 5.③ 6.① 7.③ 8.㉠은 '예시'의 전개 방식으로 (마)의 '전기가~생각하는가?'에 사용되었다. ㉡은 '인과'의 전개 방식으로 (마)의 '최첨단~설계되었기 때문이다.'에 사용되었다. ㉢은 '정의'의 전개 방식으로 (가)의 '바커는~정의하였다'에 사용되었다. 9.⑤ 10.② 11.④ 12.(나)에는 열거가 쓰였다. (다)에는 인과, 대조, 예시가 쓰였다. 13.② 14.① 15.④ 16.③ 17.⑤ 18.② 19.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

다, 지역 주민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20.⑤ 21.③ 22.① 23.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24.(1)열거, (2) 지역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된다면 적절 기술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25.③ 26.④ 27.④ 28.(1) 열거 (2) ㉢에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이어질 내용이 서로 대조, 상반됨을 알 수 있는 담화 표지이다. 29.⑤ 30.② 31.③ 32.② 33.⑤ 34.④ 35.② 36.② 37.② 38.①④ 39.⑤ 40.⑤ 41.적정, 본다 42.② 43.⑤ 44.① 45.④ 46.③ 47.② 48.① 49.④

2-(2) 무장 포고문

1.④ 2.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탐관오리들을 엄벌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3.④ 4.④ 5.③ 6. 글쓴이는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져 사유가 펼쳐지 수 없는 조선의 현실이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중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7.군신과 부자 간의 인륜이 지켜져 끝없는 복록을 누리는 국가 8.수령들의 탐학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국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병이 되어 무장봉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9.㉠ 신하들의 학정과 탐욕 때문이다. ㉡ 수많은 백성들이 봉기할 것이다. 10.⑤ 11.④ 12.④ 13.② 14.⑤ 15.④ 16.① 17.④ 18.(1) 글쓴이는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져 사유가 펼쳐질 수 없는 조선의 현실이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중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2) 진실로 수령들의 탐학 때문이다. 19.① 20.④ 21.④ 22.④ 23.② 24.⑤ 25.⑤ 26.② 27.②④ 28.⑤ 29.③ 30.② 31.② 32.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탐관오리들을 엄벌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33.②⑤ 34.④ 35.⑤ 36.④ 37.④ 38.④ 39.① 40.A : 역사 대중화 B: 역사의 대중문화 화 41.② 42.⑤

2-(3)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1.⑤ 2.④ 3.② 4.③ 5.⑤ 6.⑤ 7.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 8.첫째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가 나타난다. 둘째 다수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한다, 셋째 소수의 권익은 물론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정보의 미공유와 소수자의 침묵으로 양극화가 심화된다. 다섯째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다. 9.⑤ 10.① 11.논쟁을 통해 자

<<전체 정답>>

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㉔ 13.산파법: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문답(논쟁)을 핵심으로 하는 교수법이다. 변증법: 문답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14.㉓ 15.㉓ 16.인용법이 쓰였다. 17.㉒ 18.㉓ 19.㉔ 20.㉒ 21.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 22. [A]는 (내용)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기준)신뢰성 부분에서 (평가)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B]는 (내용)권위 있는 학자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기준)타당성 부분에서 (평가)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23.㉔ 24.㉒ 25.㉓ 26.㉔ 27.㉑ 28.㉓ 29.㉑ 30.(1)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침 (2) 전개될 내용을 미리 짐작하고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효과적이다. 31.㉓ 32.㉒ 33.㉒ 34.㉔ 35.㉒

2-(4) 꽃 출석부 1

1.㉒ 2.㉑ 3.㉒ 4.㉒ 5.㉑역사의 대중문화화 ㉒'역사의 의미'를 중시함. ㉔ 쉬운 역사를 지향함. 6.㉒ 7.㉑ 8.㉑ 9.㉑④ 10.뿌리는, 보였다. 11.글쓴이는 섬세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다.

2-(5)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1.㉒ 2.㉓ 3.㉔ 4.㉑ 5.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성격

3-(1)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

1.㉒ 2.㉔ 3.㉑김득신과 르누아르는 모두 일상생활과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에 기반한 그림을 그렸다. ㉒바니타스 회화는 삶의 덧없음과 죽음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르누아르는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였다. 4.㉒ 5.㉓ 6.르누아르는 그림을 통해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삶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인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바니타스 회화에서는 삶이란 덧없는 것이며 세월의 흐름과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7.㉓ 8.㉓⑤ 9.㉑ 10.㉔ 11.㉒ 12.㉒ 13.㉔ 14.㉒ 15.㉔ 16.㉒ 17.㉑ 18.㉓ 19.㉒ 20.㉒ 21.㉑ 22.㉓ 23.㉒ 24.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다. 25.㉒ 26.㉑ 27.㉔

3-(1) 순자의 성악설

1.㉓ 2.㉒ 3.㉒ 4.㉑ 성 ㉒ 정 ㉔ 려 ㉑ 위 5.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연고지, 산수가 빼어난 곳 6.㉔ 7.㉔ 8.㉒ 9.순자의 관점에서 청년은 본성에 따라 행동한 것이지만, 업주는 본성과 반대의 행동을 선택하고 굳센 의지로 본성을 억누른 것이다. 10.(1) 정: 외부 사물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 (2) 려: 감정이 생긴 후 행위를 선택하려는 사고 작용 (3) 위: 선택 후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 실천

11.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를 발현시켰다.

3-(2)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1.㉒ 2.(1) 방법3, 예산 투입 대상이 가장 많아 유권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정책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방법2, 방역 성공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3.㉒ 4.㉔ 5.(1) 방법3, 예산 투입 대상인 수혜 가구가 1000호로 가장 많다. (2) 방법 2, 방역 성공 가구 수가 200호로 방역 성공 효과가 가장 크다. 6.㉓ 7.㉒ 8.㉑ 9.㉑ 10.㉒ 11.㉒ 12.㉑ 13.㉒ 14.㉒ 15.㉒ 16.㉓ 17.㉔ 18.㉑ 19.㉒⑤

2-(2) 나는 고발한다

1.㉒ 2.군부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지지함.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드레퓌스를 범인으로 단정함. 3.㉑ 4.㉔

3-(3) 인류 역사와 함께한 질병, 결핵

1.㉒ 2.㉓ 3.㉑ 4.㉓ 5.㉒

4-(1) 설총

1.㉒ 2.㉔ 3.㉓ 4.㉒ 5.㉓ 6.주제: 왕의 올바른 도리에 대한 충언, 인용한 이유: 우둔한 임금으로 인해 현인들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함 7.㉑: 훌륭한 신하의 보필 ㉒:충언(쓴소리) ㉓: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만한 8.㉒ 훌륭한 인재 ㉑ 나라 안의 모든 근심을 멈추게 하는 소리

4-(1) 북학의 참뜻

1.㉒ 2.㉓ 3.(1) 편협함에 빠져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 뽐내고 중국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면서 배척만 할 뿐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용후생을 위해서 중국의 제도와 선진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